



9월26일 직원들과 희망 고객이 함께 참여해 서울에서 진행한 365mc의 ‘온세나 플로깅 캠페인’(왼쪽)과 다이어트로 살이 빠진 고객으로부터 커져서 못 입는 옷을 기부받는 의류 리사이클링 ‘커진 옷 기부’ 캠페인. 모두 환경보호 실천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ESG 경영활동의 일환이다. 사진제공 | 365mc 대표원장 협의회

“탄소비만서 지구를 지키자”

고객·임직원들과 플로깅 캠페인 생분해 봉투 등 이용해 쓰레기 수거 ‘커진 옷 기부’ 통해 소외이웃 도와 사회공헌·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이제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뉴 노멀’ 시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이는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뛰어난 의료서비스나 인력, 시설 외에 환경과 사회 등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은 병원에게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65mc는 특화 의료서비스를 ESG에 접목하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사회공헌과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효과를 거두어 주목을 받고 있다.

●조강하며 쓰레기 줄는 플로깅 응용
365mc는 지방흡입과 비만치료라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의료기관 네트워크다. 최근 365mc는 “탄소 비만이 심각한 지구를 지키자”라는 색다른 캐치프레이즈로 플로깅 캠페인을 9월 말부터 전개하고 있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업(Ploka upp)과 달리기를 뜻하는 조깅(Jogging)의 합성어다.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 등 줄는 환경보호운동을 말한다. 체력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해서만 하던 운동을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일상의 행동으로 발전시켜 현재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365mc의 이번 플로깅 캠페인이 눈길을 끄는 것은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지구를 이산화탄소 배출과 각종 쓰레기 등 오염물질 축적이라는 ‘비만’ 증상에 걸렸다고 설정한 점이다. 이러한 몸살을 앓는 지구의 ‘비만 치료’를 위해 지방흡입과 비만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365mc가 적극 나선다고 밝혀 병원의 특화 의료서비스와 ESG 활동을 재치있게 접목시켰다.

365mc는 9월26일 임직원과 고객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일대에서 ‘제1회 온세나 플로깅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캠페인의 명칭 ‘온세나’는 ‘온 세상에 사랑과 나눔 실천’이라는 의미로 365mc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임직원과 함께 365mc의 고객 중 플로깅 캠페인에 공감하는 고객들이 함께 나섰다. 이들은 캠페인용으로 제작한 생분해 봉투 및 장갑을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구비만치료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365mc는 10월1일부터는 전국 18개 지점에서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생분해 봉투와 장갑, 그리고 365mc 캐릭터인 지방이 키링으로 이루어진 플로깅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며 캠페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살 빼면서 커져 못입는 옷 기부 캠페인도
김해진 365mc 대표원장협의회 회장은 “지구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고객들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응원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인간의 비

만과 같이 탄소와 오염물질 축적으로 고통 받는 지구를 치료하고 인류와 지구 모두 비만에서 자유롭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365mc는 진정성 있는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65mc는 또한 지구 비만치료라는 테마의 ESG 사회공헌활동으로 2015년부터 ‘커진 옷 기부’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의류생산과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줄이고 리사이클링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기획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아름다운가게’와 손잡고 진행하는 ‘커진 옷 기부’는 365mc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고객들이 살을 빼면서 입을 없을 수 있게 된 옷을 장롱에 방치하는 대신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비롯한 365mc의 전국 네트워크 병의원에 고객들이 커져서 입을 수 없게 된 옷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3만7188벌의 옷을 소외이웃에게 전달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비보존 헬스케어, 헬스케어 사업 전개 본격화
비염 치료 ‘루즈 노즈 케어’ 모델로 김지혜 선정



비보존 헬스케어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치료기 ‘루즈 노즈 케어’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에 나섰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를 위해 방송인 김지혜(사진)와 ‘루즈 노즈 케어’ 모델 계약을 맺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2019년 비보존그룹에 합류하며 기존 LED 조명 중심 비즈니스에서 헬스케어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내외로 코스메틱 제품 등을 출시했고 이번 ‘루즈 노즈 케어’ 출시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앞으로 TV 광고를 포함해 홈쇼핑 판매, 지면 광고, 방송 협찬 등 다양한 채널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비보존 헬스케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제품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루즈 노즈 케어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증상 개선 등 치료에 사용되는 가정용 의료기기다. 김재범 기자



명지병원, 우즈벡 국립암센터와 업무협력

명지병원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국립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국립암센터는 2000년 국립암센터로 지정받아 각종 암 치료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의료기술, 의료인 교육, 공동 학술회의 및 세미나, 연구 활동, 환자 유치, 나눔의료 및 의료 봉사 등에서 협력한다. 김세철 명지병원 원장은 “우즈베키스탄 국립암센터 의료진이 명지병원에 연수를 하면서 시작된 관계가 협약으로 이어졌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은 2003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의료진 교육과 저소득층 무료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

◇서울아산병원 △청라병원추진단장 최기춘 △커뮤니케이션실장 노영진

내시경 이용 축농증 수술, 이비인후과 전문의 통해야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환절기를 맞으면서 비염, 축농증 등 코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그 중 축농증은 코막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 항상 신경써야 한다. 축농증(부비동염)은 코막힘 증상을 비롯해 두통, 후각기능·집중력 저하 등이 올 수 있으며 코골이로 수면장애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을 제때 치

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만성화되면 후각장애, 중이염, 기관지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축농증 발생 시 방치하지 않고 빠른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세가 심하지 않다면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비강세척 또는 약물 치료만으로 어느 정도 증상 완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근원적 치료를 위해서는 축농증 수술

을 통해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축농증 수술은 내시경을 삽입해 부비동의 입구를 넓히고 콧속 구조적인 문제를 교정해 환기와 이물질 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내시경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직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수술시간이 짧아 당일 퇴원해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축농증 수술은 3D CT 등 첨단 진단장

비를 갖춘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진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해 만족도 높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코뼈가 아직 성장 중인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임신부 등은 내시경 수술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검사를 해야 한다. 수술 후에는 코 세척과 위생관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진료로 꾸준한 경과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

수원 아주웰이비인후과 김병철 원장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0월 7일(목) 음력: 9월 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매사에 보다 긍정적이고 보수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남이 간섭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는 날이다.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일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개띠생과 대화하라.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할 필요는 만 남이 연줄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전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부나 조연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심사숙고해서 경계방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지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기의 정신이 필요하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는 게 필요하다.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